

빅데이터로 교사·입학사정관 생각 읽고 이견 좁힌다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6차례 진행 후 여론 취합 대입 정책 등에 반영키로 교육행정 과학화 시발점 여론 수렴 가능성은 의문

교육부가 빅데이터 연구팀을 신설해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시작해 전국 6개 권역별 시행하는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에서 수집한 키워드, 녹취를 바탕으로 교육과 입시에 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읽어 향후 대입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산하·유관단체와 협업해 빅데이터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에는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박사급 연구원 10명 내외가 참여한다.

빅데이터 연구팀의 설립취지는 교육행정의 과학화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수집·저장·분석이 어려운 교육·입시·직업 등 교육계 방대한 분량의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를 취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연구팀은 지난 4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에서 첫 가동됐다.

테이블당 교사 5명, 입학사정관 2명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한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에 참여한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성장,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용수기자

이 참여해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 학생부의 기록 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각 테이블에는 회의 전문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참여해 토의에서 나온 생각과 키워드를 취합해 포스트잇 등에 정리,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구글 닥스(Google Docs)에 실시간 옮겼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회의나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생님과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실시간 구글닥스에 올리고 녹취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다른 퍼실리테이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실시간 윗분들에게 공

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는 원탁토의는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학생부 기록에 관한 생각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원탁토의에 참여한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생각차는 확인됐다. 원탁토의 이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좌담회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학생 성장’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다.

학생 성장에 대해 교사들은 ‘잠재 가능성을 키워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입학사정관 다수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의 향상’을 학생 성장이라고 봤다. 원탁토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학교 교육, 학생성장,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한 인식차가 컸고,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시각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 소재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차이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게 좋을 것 같다”면서 “교사는 교육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의미를 파악해 학생 선발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원탁토의의 알려진 취지와 달리 교육부가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모 고교 교사는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면 설문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와 달리 교사들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에게 녹취 동의서도 받았다.

원탁토의 기획단계부터 교육부 내부에서는 ‘뜯구름 잡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 교사들은 이를 통해 학생 진학 지도에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으나 원탁토의에서는 대학 전형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입학사정관마다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같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원탁토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달리 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분석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빅데이터 전문가인 서울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좌담회나 토론회 빅데이터 분석은 녹음이나 타이핑을 통해 단어와 문맥을 분석하는 형태”라면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자주 나온 단어나 키워드의 빈도 측정 수준은 가능해 어린이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맥이나 발언자 성향 분석 등을 위해선 AI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고, 10년 이후나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뚜렷한 의지 없이 여론조사 등에 기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점 척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 교육공약인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대안을 내놓아 수험생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으며 김상곤 전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15개 기업 임직원이 지난 5일 식목일 ‘서울, 함께 숨쉬다’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미세먼지 대응 위해 기업과 힘 합쳐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기업, 교육기관 등과 함께 ‘서울, 함께 숨쉬다’라는 이름의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소재 숙명여대를 포함해 2개 대학과 15개 기업 소속 임직원 300여 명은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연합 모임 ‘CSR 어벤저스’를 조직했다. 이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500그루의 모목나눔과 3000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한용수 기자

인천대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 수 확대”

유학생 유치 일환 ‘입학설명 페스티벌’ UN가입국가 보다 많은 200여개 목표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제1회 인천대 진로탐색 및 전공선택을 위한 입학설명 페스티벌’식에서 “인천대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를 UN가입국가보다 많은 200여개로 늘릴 때까지 유학생 모집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로탐색과 전공선택을 위한 입학설명 페스티벌을 계속해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설명 페스티벌은 인천대 입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지난 5일 개최한 ‘제1회 인천대 진로탐색 및 전공선택을 위한 입학설명 페스티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천대

학본부 국제지원센터(ISC)와 글로벌어학원(GLI) 인천한국어학당이 공동 주

관한 행사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가능한 인천대 46개 전 학과가 참가해 열렸다. 인천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인천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과정을 수학 중인 외국인 연수생 1700명과 경인지역 외국인 연수생 300명 등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석,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방문해 진로와 입학 관련 정보를 얻었다.

한편 인천대입학본부 국제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한국어학당 연수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를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해 외국인 연수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절반 ‘나홀로족’... “사람들 감정 맞추기 피로”

인하공전, CEO가 선정한 ‘명품 전문대학’

500대 기업 대상 3년 연속 뽑혀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은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명품 전문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영 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이 32개 품목에 대해 국내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하공전은 37.04%의 지지를 받아 2위

(16.67%), 3위(11.11%)와 큰 격차를 벌리며 명품 전문대학을 차지했다.

인하공전은 올해 개교 61주년을 맞이한 대학으로 10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한민국의 공업발전에 기여해 온 인하공전은 2019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구축에 나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10명 중 9명 “혼자가 좋을 때 있어” 대인관계 서툴수록 ‘나홀로족’ ↑

대학생 2명 중 1명은 스스로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생 10명 중 9명은 ‘혼자인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혼자이고 싶은 순간으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맞추주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를 꼽았다.

잡코리아는 최근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2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은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에 달하는 5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8%였고, ‘아니다’(20.3%)는 응답은 이보다 적었다.

인간관계를 서툴게 느낄수록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 88.3%는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서울계 느낀 대학생 중 ‘나홀로족

이라는 응답이 57.3%로 높았다.

특히 대학생 대다수는 ‘혼자인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응답은 무려 92.4%에 달했는데, ‘나홀로족이 아니다’고 응답한 대학생 중에서도 78.0%가 ‘혼자인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혼자이길 바랐던 순간(복수응답)으로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맞추주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7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